

■ 2022년 어린이 문학주간 아동문학 스테이지 공모 프로그램 선정회의 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2년 어린이 문학주간 아동문학 스테이지 공모 프로그램
- 회의일시 : 2022. 4. 8.(금)
- 회의장소 : 예술가의 집 회의실

**총 평**

어린이날 제정 100주년 기념 사업인 만큼 전국 각 지역의 아동문학가, 작은도서관, 문학관, 전문 책방 등에서 골고루 지원하여 참여 열기가 높았다. 작가&동인, 도서관, 문학관, 전문책방에서 신청해 준 응모 프로그램은 총 74개였다. 해외에서까지 응모하여 열기를 고조시켰다.

전체적으로 선정된 프로그램은 기획이 다양하고 참신하였으며, 어린이뿐 아니라 온 가족을 참석 대상으로 한 공모들이 많아 의미가 있었다. 가급적 많은 어린이가 참여하고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업이 많은 것도 반가웠다. 무엇보다 전국적인 다양한 지역, 기관, 단체, 개인들이 참여하였다는 면에서 이번 아동문학 스테이지 프로그램 제안은 고무적이었다. 또한 이야기와 아동문학, 그리고 그림책 세계가 공연, 소리, 극 등 인접 예술 분야와 결합되는 방식의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보여 좋았다.

선정은 기획도 참신하지만 계획의 구체성, 성과 확산성이 높은 사업을 찾아 지원하는 데 심의의 중점을 두었다. 전국 단위의 지역 안배도 고려하였다. 한정된 예산으로 40개 프로그램을 최종적으로 지원하게 되었다. 이번 지원에 선정되지 못한 팀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이제 이 계획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 간 잘 실행시킬 과제가 남았다. 일반적인 창작교실이나 공연예술을 유치하는 공연 중심의 기획은 책과 관련된 내용으로 '문학성'을 더하면 좋겠고, 외국 도서로만 구성한 경우에도 국내 창작도서의 활용을 재고해 보아야 한다는 당부의 말을 덧붙여 둔다.

(2022 어린이날 100주년 어린이문학 주간 <아동문학 스테이지> 심의위원 함께)

**선정 후 심의위원의 소감과 바람**

“선정된 사업이 잘 수행되어 어린이문학 주간 행사가 멋지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아울러 어린이들이 행복한 5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박상재 (사)한국아동문학인협회 이사장**

“짧은 시간에도 70편이 넘는 응모계획서가 들어왔다고 해서 놀랐습니다. 다양하고 참신한 기획서가 이대로 실행된다면 아주 알찬 아동문학 주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영 어린이문화연대 상임 대표**

“어린이날 제정 100주년을 맞아 전국적으로 아동문학 무대가 펼쳐지는 것은 ‘어린이날 100년’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의미 있는 아동문학 무대가 막을 내리지 말고 내년에는 국가적 지원으로 성마를까지 아동문학 무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장정희 (사)방정환연구소 소장**

“방정환을 기억하고 어린이를 귀하게 여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5월에 펼쳐질 아동문학 스테이지가 5월을 넘어 계속 두루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방정환 정신이 세상을 더 따뜻하게, 이 세상에 더 퍼지길 바랍니다.”

**김경숙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대표**

“앞으로 일시적인 프로그램보다는 다수의 어린이들이 참여하고, 그 이후 확장 가능성이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기획되어, <아동문학 스테이지>가 내년 어린이날까지 쪽 쪽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향분 KBBY(국제아동도서협의회 한국지부) 전 회장**

“‘어린이날 100주년’과 ‘어린이’ 정신을 잘 이해하고 ‘아동문학 스테이지’ 사업의 목적에 맞게 기획된 다양한 내용의 프로그램들이 5월 어린이의 달 한 달간 풍성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은주 어린이와작은도서관 상임이사**

“코로나로 마음껏 뛰어놀지 못했던 아이들에게 이번 행사들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바라며, 그 힘이 모아져서 아이들이 마스크 벗고 뛰어놀수 있는 시간이 더 빨리지길 기대합니다.”

**김태호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대표**